



기성용

올림픽 끝나고 선택만 남았다

기성용 주가 폭등... 빅리그 4개 구단 영입전

아스널
퀸즈파크 레인저스
풀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런던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광주출신의 축구스타 기성용(23·셀틱)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축구계 소문을 전하는 인터넷 코너에서 다수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기성용이 빅리그에서 4개 구단의 입질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널, 퀸즈파크 레인저스, 풀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현재 영입전에 열을 올리는 구단으로 거론됐다.

'더 스코티시 산'은 아스널의 스카우트가 기성용을 영입선수 1순위에 올려놓았다고 까지 보도했다.

기성용은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 결정전까지 6경기를 풀타임으로 뛰며 플레이메이커로서 다양한 재능을 보여줬다.

기성용은 기량을 재확인시킨 데다 병역

문제까지 해결돼 이적 때 셀틱이 쟁길 몸값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2010년 셀틱으로 건너갈 때 FC서울이 받은 이적료가 200만 파운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닐 레논 셀틱 감독은 이미 작년부터 기성용이 1천만 파운드짜리 선수라고 언론을 통해 주장했다.

연합뉴스

홍명보 감독, 브라질 월드컵 지휘봉 잡을까

'차기 행선지' 관심... 현 대표팀과 U-20부터 호흡 함께해 발탁 가능성 커

2012 런던올림픽에서 사상 첫 동메달의 성과를 올린 홍명보(43) 올림픽 대표팀 감독의 '차기 행선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이번 대회 3-4위전에서 '숙명의 라이벌' 일본을 2-0으로 꺾고 3위를 확정하면서 1948년 런던 대회를 시작으로 메달에 도전해 온 한국 축구에 무려 64년 만에 첫 메달 획득의 기쁨을 안겨줬다.

2009년 U-20 대표팀 감독을 시작으로 올림픽 대표팀까지 3년에 걸친 '런던 올림픽 메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홍 감독은 이제 지휘봉을 놓고 후속에 들어간다.

홍 감독은 이미 올림픽 이전부터 프로축구 K리그 구단은 물론 일본 J리그에서도 영입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림픽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모두 고사했다.

이 때문에 팬들은 물론 축구 관계자들도 '블루칩'으로 확실히 떠오른 홍 감독의 선택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홍 감독은 2년 앞으로 다가온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 무대의 지휘봉을 잡을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입지를 확실하게 다졌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을 치르고 있는 A대표팀은 현재 최강희 감독이 지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조광래 감독의 뒤를 이어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최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 축구가 월드컵 본선에 갔을 때 성과를 내기에는 내가 여러모로 부족하다"며 "본선에 가더라도 대표팀 감독직을 내가 사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령탑을 맡기 직전에는 월드컵 대표팀에서 활약하는 선수 대부분이 홍 감독과 함께 U-20 대표팀 시절부터 함께 뛰었던 선수여서 홍 감독이 올림픽 감독과 월드컵 감독을 당분간 겸임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이후 최 감독은 이후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도 A대표팀을 월드컵 본선으로 이끈 뒤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예선은 내년 6월에 끝난다.

최 감독이 중간에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축구 대표팀은 앞으로 8개월 후에 월드컵 대표팀을 이끌 새로운 사령탑을 뽑아야 한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는 이번 런던올림픽

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젊은파'로 대거 투입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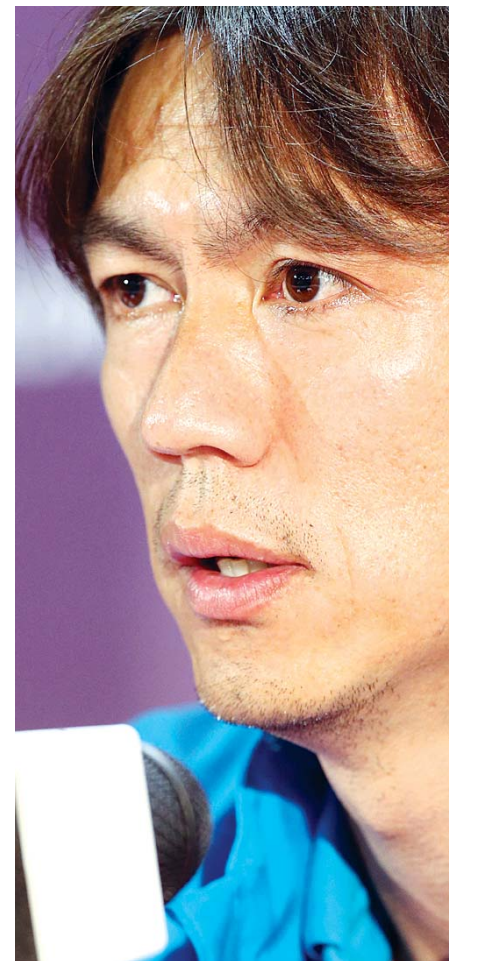
이미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김보경(카디프 시티), 김영권(광주 FC), 지동원(선덜랜드), 기성용(셀틱), 남태희(레아야) 등 홍명보호의 주전 멤버들은 월드컵 대표팀에서 함께 뛰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홍명보호 태극전사'들은 자연스럽게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멤버로 흡수될 전망이다. 만큼 이들을 사실상 20세 이하 대표팀부터 이끌어온 홍 감독이 축구협회에 선택될 수 있는 최선의 카드가 될 수 있다.

반면 K리그 사령탑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이미 이번 시즌이 중반을 넘은데다 내년에 K리그 팀의 지휘봉을 맡는다 하더라도 최강희 감독이 내년 6월 실제로 월드컵 대표팀 지휘봉을 놓는다면 자연스럽게 차기 대표팀 감독 후보로 주목될 가능성이 커져 선택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 축구인은 "홍명보 감독과 함께 U-20 대표팀부터 함께 호흡을 맞춘 선수들이 월드컵까지 이어지면 이번 올림픽처럼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선수와의 신뢰가 굳건한 홍 감독이 최고 장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축구협회, FIFA 본부 방문

박종우 '독도 세리머니' 경위 직접 해명

대한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을 방문해 '독도 세리머니'의 경위와 논란의 실체를 설명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해 서면 해명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FIFA 본부를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FIFA는 런던올림픽에서 박종우(23·부산)의 세리머니가 논란을 일으키자 16일자

지 협회의 자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김주성 협회 사무총장은 자료제출 시한에 맞춰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FIFA 본부가 있는 스위스 취리히로 떠났다.

협회는 조사 보고서에 논란의 당사자인 박종우와의 면담 내용, 세리머니 전후에 필드, 관중석을 활약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담았다.

이들 자료는 박종우의 세리머니가 특정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 13일 박종우를 만나 메달 수여가 보류된 점을 위로하고 정치적 의도로 계획했다고 오해될 수 있는 퍼포먼스를 펼친 경위를 물었다.

김 총장은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물을 관중석에서 우연히 전달받았다는 박종우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FIFA 관계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사태의 실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본이 거듭 자행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진실, 이에 대한 한국민의 공통된 정서,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등 배경도 설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우는 지난 11일 영국 웨일스 카디프의 밀레니엄경기장에서 열린 일본과의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동메달결정전에서 승리하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종이를 들고 운동장을 달렸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박종우의 세리머니가 정치적 선전을 금지하는 올림픽 헌장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메달 수여를 보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메달을 박탈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예비적 조치다.

FIFA는 사태의 진상을 보고하라는 IOC의 지시와는 별도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자체 법규나 경기 규칙을 위반했는지 판단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브라질 월드컵 공인구 이름 '팬투표로 결정'

월드컵축구대회 공인구 제조업체인 아디다스가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사용할 공인구의 이름을 팬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디다스가 내놓은 공인구 이름의 후보는 카르나발레스카, 보사노바, 브라주카 등 3개로 모두 브라질어다.

'카르나발레스카'는 브라질의 카니발에 참석하거나 계획을 짜는 사람을 칭

하는 단어이고, '보사노바'는 1950~1960년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행한 삼바 재즈 음악을 대표하는 말이다.

'브라주카'는 브라질 사람을 뜻하는 속어다.

아디다스는 브라질어 홈페이지(www.adidas.com.br/nome-da-bola-2014)를 통해 9월2일까지 투표를 받아 새로운 공인구의 이름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주영 벤치신세는 축구 팬에 대한 모독" 아스널 팬 사이트

골잡이 박주영(27·아스널·사진)이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나서 아스널 팬들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영국의 온라인 매체 '아스널인사이드'는 15일(한국시각) 게재된 '올림픽이 끝나자 박주영이 축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주영의 더 잦은 출전을 촉구했다. 이 사이트는 박주영의 소속 클럽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아스널 구단의 대표적인 팬 사이트다.

이 매체는 "박주영보다 훨씬 못하면서 경

기마다 90분씩 뛰는 선수가 있다"며 "박주영처럼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이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스널 팬뿐만 아니라 축구 팬 전반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주영이 이제는 아르센 벵거 아스널 감독과 동료에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진가를 보여줄 준비가 됐다는 것을 입증할 때가 왔다"라고 덧붙였다.

아스널인사이드는 박주영이 프랑스리그를 떠나 지난 시즌 아스널에 입단한 뒤부터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을 견인하고 병역 특례를

적용받게 된 사실 등을 자세히 기술했다.

박주영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경기, 컵대회에서 3경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2경기를 뛰는 등 기량을 보여줄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해 애를 태웠다.

한편 아스널 구단의 공식 홈페이지는 박주영이 올림픽에서 2골을 터뜨려 한국의 동메달 획득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 날에야 눈에 잘 띄지 않는 토막소식을 통해 알렸다.

연합뉴스

